



2012년 11월 1일(목)

## □ 미국 경제 동향

- 1) 10월중 신규고용자수 8개월래 최대 증가
- 2) 10월 마지막주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 소폭 감소
- 3) 10월중 소비자기대지수 2008년래 최고 기록
- 4) 미 투자자들, 공화당 롬니 후보 선호

## □ 해외 경제 동향

- 1) 유로존, 9월중 실업률 사상최고 기록
- 2) 중국, 10월중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 경기 확장국면으로 반등

## □ 산업·시장 동향

- 1) 파나소닉, 금년중 100억 달러 손실 기록
- 2) 영국법원, 애플社에 <삼성 사과 광고>명령 2차 경고

## □ 미국 경제 동향

### 1) 10월중 신규고용자수 8개월래 최대 증가

- 지난 11월1일(현지시간) ADP社는 미국의 10월중 민간 고용이 15만8천 건 증가했다고 발표
  - 이는 전문가 예상치 13만1천명 증가를 상회하는 것으로 지난 8개월래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
  - 한편 9월중 결과치 16만2천명 증가는 11만4천명 증가로 큰 폭 하향 조정
- 전문가들은 최근 기업들의 고용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기업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시장을 관찰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과 해고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

### 2) 10월 마지막주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 소폭 감소

- 지난 11월1일(현지시간) 미노동부는 10월 마지막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대비 9천 건 감소한 36만3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 37만 건을 하회하는 수준
  - 아울러 10월 셋째주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종전 36만9천 건 대비 3천 건 증가한 37만2천 건으로 수정 발표
- 전문가들은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감소한 것은 고용시장의 분위기가 호조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
  -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대량 해고나 대량 고용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
- 한편 지난 10월20일(현지시간)기준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은 326만 명으로 전주대비 1만 명 증가

### 3) 10월중 소비자기대지수 2008년래 최고 기록

- 지난 11월1일(현지시간) 컨퍼런스보드는 휘발유 가격 하락과 주택시장 회복세가 소비 기대감을 상승을 주도하는 등 미국의 10월중 소비자기대지수가 72.2를 기록했다고 발표

- 전문가들은 최근 실업률이 낮아지고 주택가격이 견고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
  - 특히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미미하지만 주택 가격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택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

#### 4) 미 투자자들, 공화당 롬니 후보 선호

- 지난 10월31일(현지시간) 마켓워치가 미국내 투자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보다는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를 훨씬 더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
  -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의 64.2%는 롬니를 지지, 오바마의 재선을 원하는 응답자는 2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8.6%는 아직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
- 6개월 전 설문조사결과 대비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롬니 후보 지지율은 큰폭 하락
  - 당시 롬니 후보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각각 76% 대 24%로 압도적인 격차를 보인 바 있음
- 한편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57%는 롬니 후보의 대선 승리를 예상,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를 예상한 응답자는 43%로 나타남
- 아울러 마켓워치는 이번 설문 결과 미국내 투자자들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분석

#### □ 해외 경제 동향

##### 1) 유로존, 9월중 실업률 사상최고 기록

- 지난 10월3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통계청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9월중 실업률이 11.6%를 기록, 지난 1999년 유로존 결성 이후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발표
  - 유로스타트 관계자는 유로존내 9월중 실업자수는 지난 8월대비 14만6천 명 증가한 1,849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

-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실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재정위기 진원지인 스페인으로 나타남
  - 스페인의 9월중 전체 실업률은 25.8%로 전월대비 0.3%p 상승했고, 특히 25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월대비 0.4%p 상승하여 무려 54.2%를 기록
- 반면 실업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오스트리아로 4.4%를 나타냈으며, 2위는 독일로 5.4%를 기록

## 2) 중국, 10월중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 경기 확장국면으로 반등

- 지난 11월1일(현지시간) 중국 국가통계국과 중국 물류구매연합회는 10월중 제조업 PMI가 50.2를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8월중 49.2, 9월중 49.8을 기록한 뒤 처음으로 50선을 넘은 결과로 전문가 전망치와도 부합하는 결과
    - 제조업 PMI는 제조업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50을 넘으면 경기확장을 뜻하고, 50을 밑돌면 수축되고 있음을 나타냄

## □ 산업·시장 동향

### 1) 파나소닉, 금년중 100억 달러 손실 기록

- 지난 10월31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WP)는 파나소닉이 올해 TV 부문 사업 부진으로 96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 투자자들의 구조조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
  - 전문가들은 이 같은 파나소닉의 손실액은 전문가 예상치보다 30배나 늘어난 규모로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평가
- 한편 히데야키 카와이 파나소닉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현재 상황은 예상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한반기 실적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언급
  - 또한 TV, 카메라, 블루레이 디스크 플레이어, PC 등 디지털 가전사업이 3개월 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고 발표
- 하지만 파나소닉측은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원 감축은 없다고 강조

- 파나소닉은 수익성 악화로 지난해 4월 직원 3만9천여 명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한바 있음

## 2) 영국법원, 애플사에 <삼성 사과 광고>명령 2차 경고

- o 지난 11월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영국 항소법원이 애플에게 24시간 내에 삼성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 내용을 공지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
  - 로빈 제이콥스 판사는 애플과 같은 회사가 이 같이 행동한 것에 대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난감함을 표하며, 이는 명령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 o 지난 10월18일(현지시간) 영국 법원은 삼성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애플의 항소심을 기각, 애플은 7일 이내에 영국의 주요 신문과 잡지는 물론 자사 영국 홈페이지에 6개월간 법원판결을 공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바 있음